



# 질 의 응 답 Q A

**Q** 양돈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양기술의 부족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암태지의 발정상태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여 종부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의 발정징후, 발정상황, 종부적기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돈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 보령군 주산면 김기영〉

**A** 돼지의 번식 성적을 높이는 것은 양돈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번식성적에 따라 양돈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식성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품종, 영양상태, 사육환경 등 개체의 조건에 따라 초발정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50~210일령에 초발정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 성 성숙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부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초발정이 시작된 다음 수회에 걸쳐 불규칙 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발정이 계속됩니다. 발정주기는 평균 21일입니다.

정상적인 발정이 3회 이상 계속되고, 체중이 130kg 내외에 도달하는 240일령 정도일때에 첫 종부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발정체크는 하루에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정징후는 외음부가 충혈, 팽대하여 있으며, 점액을 분비하고, 숫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허리의 뒷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달아

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귀체를 몸체에 붙이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발정지속 기간은 평균 58시간 정도인데, 경산돈인 경우는 평균 70시간 정도이고 미경산돈인 경우는 평균 54.7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유모돈의 발정 재귀일은 포유자돈수, 포유기간, 이유모돈의 영양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유후 3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정이 오며 평균 발정 재귀일은 7일 정도입니다.

10일 이내에 이유모돈의 90% 이상에 발정이 오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유모돈의 발정재귀는 체중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분만사에서 개체별로 사료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유모돈의 조기 발정재귀를 위해서는 사료의 양이나 질의 변화 및 급여 횟수를 변화시켜 보는 것이 좋으며 발정 모돈과 합사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시키고 Vitamin D<sub>3</sub>·E, 무기물 등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부적기는 발정개시 후 10~25시간 사이가 교배의 적기입니다. 대개 발정돈을 아침에 발견하면 저녁때 종부를 시키고, 저녁때 발견하면

외음부의 상태와 교미적기

일 수	1	2	3	4	5	6	7
외음부의 종장발적							
수태율			% 81	% 100	% 46	% 50	% 0
허용개시후시간	개시 10 26 37 48 72 시간						
기 별	발정전기		중부 적기	배란 기	발정후기		
	발정기						

다음날 아침에 중부를 시킵니다. 중부시킨 다음 12시간 후에 다시 한번 교배시켜 2회 교배시키는 것이 수태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육안에 의한 외부의 변화를 보고 중부적기를 판단할 때는 외음부의 부어 있는 상태가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약간 줄어들었을 때가 교배의 적기입니다. 이때가 웅돈 허용후 12~25시간일 때입니다.

중부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돼지의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번식돈의 사용에 있어서 성숙이 덜 된 모돈을 사용하면 산자수가 적고, 자돈의 생시체중

이 적습니다. 또한, 포유자돈의 발육이 나쁘고, 모돈의 사용 연한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번식 연령이 늦을때 사용하면 불임돈이 되기 쉽고 산자수가 적으며, 비유능력이 나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모돈을 활용하는 적절한 시기는 개체에 따라 구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좀 더 세밀한 관찰과 관리가 발정적기를 체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리하셔서 번식성적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응답자: 본회 홍보부 최승덕)